

취업성공후기

학번	2017*****	취업기관 명	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
이름	김**	외국어점수	-
학점	4.23/4.50(2/40)	동아리활동	-
전형방법	1차 서류전형, 2차 직무면접, 3차 인성면접, 4차 신체검사		
취업기관의 미션 및 비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간중심의 진료, 연구,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. • 비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- 선도적 교육, 연구를 실천하는 병원 - 지역 및 교직원과 함께 발전하는 병원 • 핵심가치(Core Value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계 수준의 진료 - 환자 중심의 주의 - 첨단 선진연구 - 핵심 인재육성 - 정보 시스템 경영 - 지역사회 봉사 - 조직문화 혁신 		
취업기관이 원하는 인재상	충남권, 중부권 거점병원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며,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중요시 한다.		
면접 시 질문	<p><질문 예시></p> <p>1. 직무면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tt 및 dose 계산 - 정확한 CPR의 순서(2022년도 입사, 2021 면접 시)(본인의 경우 성인 포함 영아의 심폐소생술 순서까지 기재함) - 의료오류 발생 시 어떻게 대처 하겠는가? (본인의 경우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, "사건조사보고서",나 "근접오류 보고서" 등 병원의 procedure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, 병동 차원에서 팀 회의 등을 진행하여 병동 QI활동 등을 기획하여 의료오류율 감소를 도모할 것이라고 답함) <p>2. 인성면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기소개(자기소개를 준비해갔으나, 면접 30분 정도 전에 5년 후, 10년후 등 미래의 자신의 계획 등을 짧게(30초 정도) 소개하라고 하여 급하게 생각해냈음, 본인의 경우 첫 OP(T&A)를 단국대병원에서 받았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제가 처음 수술받은 병원이 단국대병원이었고 아직까지도 직원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에 남습니다.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단국대학 		

	<p>교 병원에서 그 따스한 미소를 제가 담당한 대상자 및 보호자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<면접 분위기> 화기애애하고 잘 웃어주신다. 다만 어물쩍한 대답을 할 경우 면접관 분들의 표정의 변화가 순간 지나간다. 그래도 금방 다시 평정심을 되찾으시는 편이다.</p> <p><면접 TIP></p> <p>한 질문 이후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 편이다. 현재의 상황이나, 이전 질문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, 전형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다. 면접 시 직무면접에서는 기본간호와 성인간호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, 인성면접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 부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.</p> <p>두루두루 전체적인 부분을 공부하되 교수님들께서 국시나 임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시던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. 학습시 중요점이나, 임상에서의 중요한 점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고 비슷하기 때문이다.</p>
<p>본인이 생각하는 합격이유</p>	<p>우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지도교수님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관련 피드백이었다. 대학 내 취업처에서 자문을 구해도 되나, 의료관련 인력은 타 직무군과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.</p> <p>또한 실전에서 조금이라도 덜 떨려면 학교에서 진행해주셨던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다. 2021년도의 경우 외부 면접관님도 초빙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들을 받았고, 이를 대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.</p> <p>저는 국제대학교 간호과의 첫 학번입니다. 후배 선생님들 고되시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. 공부할 것도 많고, 신경 쓰실 일들도 많으시겠지요. 저의 직업가치관은 "대상자 분을 care는 못할 망정, 폐는 끼치지 말아야지."입니다. 그럴려면 많은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, 이렇게 공부하다보니 장학금도 받아보고 즐거운 대학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대학 시절에 직업가치관을 잡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.</p> <p>또한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서 정말 타학교보다 학생들 많이 챙겨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.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교수님들 정말 없으실 것예요. 제 롤모델이신 간호사 선배님들이자,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. 부디 잘 따라주세요. 후배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, 너무 고생 많으셨고, 다가오는 내일 하루도 화이팅하시고, 힘내시기를 제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</p>

국 제 대 학 교 간 호 학 과